

부산지역 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 성료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지역 우수병원 간 취업의 장

“한자리에서 다양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근무 여건이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큰 도움이 됐어요.”

“2018 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5월 1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간호사회 주최,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부산·울산권역센터와 벡스코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부산시병원회가 후원했다.

취업박람회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지역 우수병원 52개가 참여했고, 1300여명의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및 유유간호사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구직자 대상으로 1:1 채용 상담을 실시했으며, 총 5679건의 면접이 이뤄졌다. 진로컨설팅, 모의면접, 메이크업 부스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선배간호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임상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실제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유간호사들은 “내가 살고 있



2018 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간호사회 주최,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부산·울산권역센터와 벡스코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부산시병원회가 후원했다.



는 지역에 근무여건과 복지제도가 좋은 병원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취업으로 직접 연계되는 현장면접을 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 진로상담 및 취업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에비간호사 진로교육’도 벡스코 3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간호대학생 450여 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최근 보건의료 이슈’ 주제로 황순연 부산시간호사회장이 특강을 했으며, ‘선배간호사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보건의료환경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는 2017년 11월 부산 지역 최초로 개최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에 기여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우수병원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정 기자 sjcho@koreanurse.or.kr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총회

고순희 회장 선출 … “간호교육 발전 위해 최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정기총회를 4월 27일 열고 새 회장으로 고순희 포항대 간호학부장(사진)을 선출했다.

제1부회장에는 박서현 서울여자간호대 교무처장, 제2부회장에는 김정순 한영대 간호학과장, 감사에는 최귀운 울산과학대 간호학과장과 정귀에 영남이공대 간호대학장이 선출됐다.

고순희 신임 회장은 “간호교육 발전과 간호학문 연구, 회원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요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정부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원진들과 함께 협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순희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 표준화에 주력하고, 임상실습교육장 환경 개선과 국제적 흐름에 맞는



직적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 강화와 인간관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조직문화 혁신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연구활동과 세미나 및 간호교육 관련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경남 양산시간호사회 봉사활동 실시

경남간호사회 산하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장우연)는 ‘2018 양산 유채꽃 향연’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석한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를 위하여 행사장 인근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4월 20일 실시했다.

양산시간호사회는 2009년 창립 이후 양산시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의료용품 지원, 간호대학생 장학금 지급, 회원 특강 개최 등의 간호사업을 꾸



준히 해왔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간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8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재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간. 담도, 췌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소아청소년암환자 간호
간호사를 위한 임상해부생리	임상간호연구방법
주제	고위험신생아 간호
	장기이식환자 간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간호	프리센터 역량강화교육
비노기계환자 간호	혈액·조혈기계의 건강문제와 간호

* 주제별 단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찰 처리함

- 참가방법 :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 개발비 : 8시간 기준 3,000만원 (VAT 포함)
 -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 1) 간호계 :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인 한함
 - 간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의료기관 소속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팀장급 이상)
 - 2) 비간호계(의사인) :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의과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제출서류 :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자기점점표, 최종력량증명서, 재직증명서
 - 신청마감 : 2018년 6월 8일(금),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 제출처 : eduson@koreanurse.or.kr(02-2206-1913)
-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

세브란스 공감2.0 선포 … 공감, 또 하나의 치료

세브란스병원, 환자 안전 최우선 문화 공감영역으로 확장

세브란스병원이 ‘세브란스 공감2.0’ 선포식을 5월 8일 개최했다.

공감프로젝트 2.0은 그동안 간호국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공감프로젝트 1.0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유한다는 공감의 의미를 세브란스 병원의 문화와 가치로 더욱 확장시키자는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세브란스의 문화를 보다 넓고 깊은 ‘공감’의 영역으로 확장해 세브란스 역사에 중요한 문화전환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프로젝트 2.0 TF 위원장을 맡은 오경환 간호담담부원장은 공감프로젝트 1.0의 성과에 대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7년 연속 1위, JCI 4차 인증 등 세브란스병원이 이룬 값진 성과는 늘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라며 “전 직원의 동참으로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해 나가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공감(共感)의 공간(空間)’ 주제로 안신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특강을 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감슬로건 공모 당선작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공의와 간호사 등 직능별 대표 16인이 함께하는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앞으로 공감 스토리 발굴, 플래시몹, 공감 뉴스레터 제작, 12월 공감페스티벌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닥터헬기 ‘경기 아주대병원’ 배치된다

전국 일곱 번째 배치 … 응급환자 신속 치료 기대

일곱 번째 닥터헬기가 경기도 아주대병원에 배치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가 배치되는 병원은 아주대병원이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며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헬기이송 수요가 많

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 및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해 일곱 번째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거주해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육로이송이 제한됨에 따라 헬기이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2011년부터 아주대병원 외상전문팀과 소방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닥

터헬기에 소방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는 등 소방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2대(인천 가천대 길병원·전남 목포한국병원)를 시작으로 2013년 2대(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경북 안동병원), 2016년 2대(충남 단국대병원·전북 원광대병원)가 운항을 개시했다. 누적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함께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을 통해 응급환자의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해나간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

게시판

서울시간호사회 간호법 세미나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간호법 세미나’를 5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호법 세미나는 올해 총 3차례 열린다. 이번 1차 세미나에서는 ‘진료과별 의료분쟁과 간호사의 역할: 한국의료분쟁조정재원 소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오지은 변호사가 강연한다. 02)853-5497.

당뇨환자 자가발관리 지도자과정

오정옥과부재활센터 임상연구소&아카데미(소장 오정옥 한국과부재활간호사회장)에서 ‘당뇨환자 자가발관리 지도자과정’을 6월 17일(일) 개최한다. 1일 단기코스로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론 및 실기 진행.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강료는 22만원. 수료 후 당뇨환자 발관리 교육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ojpsrc.com) 참조. 02)552-7701.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